

KMI 국제물류위클리

2017년 4월 19일 · 제 403호
항만·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
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총괄 김은수 실장, 감수 김형태 선임연구위원

Contents

| 물류정책·사업동향 |

1. 중국 해운기업, 해양실크로드 추진
2.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, 상하이 양산항 대규모 지연 유발
3. 멜버른 항 빅토리아 컨테이너 터미널이 스마트 기간 시설로 선정
4. 전자상거래 수요 증가에 따른 국경 간 통관 간편화

| 물류시장동향 |

1. 독일 물류기업 DB Schenker 아시아-유럽간 복합운송서비스 개발
2. 칭다오·시안 세관, 연합하여 물류·공급망관리 일체화 추진





물류정책·사업동향

중국 해운기업, 해양실크로드 추진

- 중국 국영 해운기업들은 중국 화물의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세계 항만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음
 - 이러한 움직임은 Cosco Group과 CMHI(China Merchant Holdings International) 등이 주도하고 있음
 - 그러나 중국 당국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무역항로를 컨트롤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밝힘
 -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아시아-유럽 항로의 항만들에서 중국 선박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
- 중국 주석 시진핑의 아이디어인 ‘해양실크로드’는 ‘일대일로 정책’의 일부로서 중국과 유럽을 육상 및 해상으로 연결하는 4조 달러 규모의 사업임
 -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표방과 세계무역협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시진핑의 일대일로를 통한 세계화 전략이 힘을 받고 있음
 -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휴양지인 Mar-a-Largo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최대 경제국가인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 불균형에 대한 어려운 논의가 수반될 것이라고 경고함
 - 베이징에서는 5월 중순 아시아, 유럽, 아프리카의 2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실크로드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임
 - 초청자에는 블라디미르 푸틴(Vladimir Putin) 러시아 대통령과 테레사 메이(Theresa May) 영국 총리도 포함됨
- 한편 중국개발은행(China Development Bank)은 올해 1월 Cosco에 26억 달러의 신용을 제공한바 있음
 - 2016년 정기선 사업에서 14억 달러의 손실을 본 Cosco는 세계 6위의 항만 운영기업이자 4위의 정기선 해운회사임
- 글로벌 해운회사들은 컨테이너 해상운임의 회복이 예상되기도 전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항만 투자를 늘려왔음
 - 최근 선사간 통합화를 통해 주요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 수는 20개에서 12개로 줄어들었으며 해운얼라이언스 역시 재편되어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감
 - Cosco의 경쟁 업체 중 하나인 APM Terminal은 덴마크 기업 AP Moller Maersk A/S의 자회사로 2010년 78억 달러를 터미널 구입에 투자함
 - 올해 1월에는 세계 2위의 컨테이너 선사인 MSC가 최근 파산한 한진해운의 캘리포니아주



롱비치항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터미널의 54%를 매입함

- 중국과 벨기에 대학의 항만 경제학 교수인 Theo Notteboom의 연구에 따르면, Cosco, CMHI, China Overseas Port Holdings는 2010년 이후 상위 50개 컨테이너 항만 중 12개 항만에 대한 지분에 40억 달러 이상 투자함
 - 또한 그는 중국이 해안선을 따라 항만에 투자한 금액이 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함
 - Cosco는 최근 시애틀항, 이탈리아의 Vado항만, 그리스의 Piraeus항만에 투자했음
 - 2016년에 Piraeus항만의 운영권 지분 51% 구입에 3억달러를 투자했으며 추가지분15%에 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함
 - 한편 Cosco는 Piraeus항만의 2016년 컨테이너 물량이 14% 증가하면서 최고의 실적을 올린 항만중의 하나라고 언급함
 - 2013년부터 파키스탄의 Gwadar항에서 영업중인 China Overseas는 환적터미널 및 해상 액화가스시설 관련 프로젝트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음

자료 : www.theaustrailian.com, 2017.4.10.

박성화 전문연구원
051-797-4614, shpark83@kmi.re.kr



해운 얼라이언스 재편, 상하이 양산항 대규모 지연 유발

- 상하이 양산항은 대륙의 영향으로 인한 매우 짙은 안개로 선박이 항구에 접안하지 못하거나 경로를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항만 지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
 - Maersk 대변인은 양산항의 악천후로 인해 일부 자사 선박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,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항만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함
 - Maersk 선박 중 4척이 악천후의 영향으로 항로를 변경하였으며, 다른 선사들도 항만의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다수의 배가 근해에 대기하고 있다고 언급함
- 프랑스 Setcargo의 해외 네트워크 관리자인 Nicolas Vittori는 악천후와 더불어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을 계기로 만연해 있던 선사들의 초과 예약이 상하이 양산항의 지연 원인으로 지목함
 - 선사는 선박을 초과 예약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예약을 받고 있는 반면, 중국 수출업자의 컨테이너는 선박에 적재되지 못하고 항만에 남아 있음
 - Vittori에 따르면 양산항을 이용하는 화주 및 물류업체들이 항만 혼잡의 해결시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, 항만당국과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언급함
 - 또한, 항만 운영자들의 경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
- 항내 정체는 유럽-아시아 항로의 Eastbound에서 컨테이너 수용능력의 부족에 기인하고 있으며, 이는 지난 3월 유럽 하주 협의회(European Shippers' Council; ESC)가 경고하였음
 - 4월 1일부터 THE Alliance, OCEAN Alliance, 2M+HMM 등 대규모 해운 얼라이언스가 4개에서 3개로 감소했으며, 현재 얼라이언스들은 서비스 네트워크의 합리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 - 그러나, ESC는 이 문제가 2년 전 얼라이언스를 체결한 것 보다 훨씬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성명서를 통해 밝혔음
 - 유럽~아시아 화주들은 5월 이전에는 기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못하거나 슬롯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으며, 컨테이너 예약 가격은 45% 급증했다고 밝힘
 - ESC는 일부 수출업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식을 시도함에 따라 매출 하락, 재고 관리 실패 등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언급함

자료 : www.americanshipper.com, 2017.4.18.

이기열 전문연구원
051-797-4670, kylee@kmi.re.kr



멜버른 항 빅토리아 컨테이너 터미널이 스마트 기간시설로 선정

- 호주의 멜버른 항에 새로 건설된 빅토리아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(VICT)이 최근 올해의 스마트 기간시설 사업으로 선정됨
 - VICT는 4억 달러 사업으로 심사위원들은 사업의 중요성, 호주 거대 컨테이너 항만에서 자동화 정도, 운영 능력 및 효율성의 개선, 대형선박에 대한 서비스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고 함
 - VICT는 ICTSI(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Services)의 자회사로 올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감
 - 자동화 터미널은 ICTSI 그룹에서 첫 번째 사례이며, 자동화 수준에서 평가할 때 호주에서 가장 진보한 터미널로 인식되고 있음
- VICT의 개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졌음
 - 1단계 터미널은 2016년 12월 31일 완공되었으며, 330 미터 길이의 1선석으로 구성됨
 - 신 파나맥스 로봇 크레인(Neo-Panamax robotic ship-to-shore) 3대가 설치됨
 - 23.7 헥타르의 야적장 및 부두 밖 지역을 보유하고 있음
 - 게이트에서 선석까지 완전 자동화로 운영되고 있으며, 35만개의 표준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됨
 - 2단계 터미널은 신 파나맥스 로봇 크레인 2대가 추가로 설치되며, 터미널 처리능력이 백만 개의 표준 컨테이너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
호주 멜버른 항 빅토리아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



자료 : <http://www.maritime-executive.com>



- 물동량의 증가로 터미널이 완전히 개발될 경우, 면적은 35.4 헥타르가 됨
 - 총 8대의 신 파나맥스 로봇 크레인이 설치될 것임
 - 연간 180만 개의 표준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설계되었음
 - VICT는 웨스트 게이트 대교(West Gate Bridge)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며, 8,000 ~ 12,500 TEUs 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음
- VICT는 전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한 터미널 중 하나이며, 호주의 미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의 기준이 될 것임
 - 아직 운영의 초기단계이지만 성과 및 지속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음
 - 자동화된 터미널에서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우려를 말끔히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음
 - VICT의 최고책임자는 운영 효율성 제고 목표 수준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음
 - 참고로 멜버른 항은 호주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및 일반 화물 처리 항이며, 260만 TEUs 의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음

자료 : <http://www.maritime-executive.com>, 2017.4.12.

박창근 전문연구원
051-797-4781, beinji2@kmi.re.kr



전자상거래 수요 증가에 따른 국경 간 통관 간편화

- 최근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
 - 하지만, 전자상거래 이용 시 지불 수단, 배송시간, 통관 및 반품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
 - 이에 따라, Fedex, UPS 등의 물류업체는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역량 확대를 위해 틈새시장을 확보하려 노력을 하고 있음
 - 전문 리서치 기관인 포레스터(Forrester)에 따르면, 국경 간 B2C 전자상거래 규모는 향후 5년 간 2배 이상 증가하여 2020년까지 약 4,2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
 - 중국의 전체무역에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비중은 2015년 21퍼센트를 초과하였고, 2021년에는 약 40퍼센트 정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
- 중국의 첫 자유무역지구인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는 전자상거래의 성장에 따라 통관 비용 절감을 포함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음
 - 와이가오차오(Waigaoqiao)항, 양산(Yangshan)항 및 푸둥(Pudong) 국제공항이 자유무역 지구에 해당함
 - J.D.com, 선잉 커머스 그룹(Suninig Commerce Group), 아마존 및 중국 최초의 해외상품 구매전용 온라인 유통 플랫폼인 콰징통(Kuajingtong)도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에 위치하고 있음
 - 현재, 약 400개 이상의 수입 상인들이 콰징통(Kuajingtong)의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고, 이 플랫폼을 통해 하루에 평균 10,000개 이상의 주문량이 처리되고 있음
-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스키폴(Schipol) 국제공항이 전자상거래 수입통관과정을 간편화 하는데 앞장서고 있음
 - 스키폴 공항 당국은 세관과 협력해서 VENUE라는 간단한 전자상거래 통관 시스템을 도입함
 - VENUE 시스템에서 인증을 받은 화주는 22유로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HS 코드 없이 사전에 세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
 - 별도의 HS 코드 생성이 필요하지 않은 거래의 경우, 세관 및 화주의 행정업무 처리 시간 및 비용이 줄어들고, 배송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

자료 : <http://www.supplychainbrain.com/>2017.4.11.

강선미 연구원
051-797-4776, sunmikang@kmi.re.kr



물류시장동향

독일 물류기업 DB Schenker 아시아-유럽간 복합운송서비스 개발

- 독일 물류기업 DB Schenker는 동남아시아(태국)-유럽(폴란드) 간을 17일 만에 수송이 가능한 복합운송서비스 상용화에 성공
 - 최근 DB Schenker는 덴탈케어 관련 원료를 적재한 컨테이너를 태국 Chonburi 지역에서 폴란드 Swidnice 까지 수송하는데 성공하면서 아시아-유럽을 잇는 복합운송서비스 시장 개척을 본격화
 - 이번 서비스는 육상수송 5일(태국-라오스-베트남-중국(충칭)), 철도수송 11일(중국(충칭)-폴란드(마야세비체)), 육상수송 1일(폴란드 역내)이 결합한 복합운송서비스로 총 17일 소요
- 향후, DB Schenker 동남아시아 역내의 국경을 넘는 육상수송(트럭)과 중국-유럽 간 철도수송을 결합하여 아시아-유럽 간 복합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자사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

자료 : <http://logistics-manager.com/>, 2017.4.12.

이주원 연구원
051-797-4669, peterlee@kmi.re.kr

칭다오·시안 세관, 연합하여 물류·공급망관리 일체화 추진

- 시안과 칭다오는 4월 6일 산시성 시안의 국제 항무국에서 개최된 일대일로(One Belt One Road) 구역 좌담회를 통해, 세관 및 항무 부문 등에 ‘일대일로’ 구역 물류·공급망관리의 일체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함
 - 좌담회는 ‘일대일로’와 서부 대개발 전략의 실현, 5월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‘일대일로’ 국제협력정상회의에 대응하고자 개최함
- 칭다오항과 시안 국제항의 연동을 위해, 칭다오 자오저우와 시안의 철도 통상구를 정식 개방하고, 복합운송세관감시센터의 화물집산 기능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, 수출입 화물의 통관 비용 절감 및 연해와 내륙의 협력발전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
- 또한 해운-철송 복합운송, 해상-내륙 복합운송, 항공-철도 복합운송 등 다양한 운송 수단과 연계해 자원을 철저히 공유하여 높은 수준의 표준화 체계를 갖추고 고차원적인 물류·공급망관리의 개혁을 추진하기로 함

자료 : www.shippingchina.com/ 2017.4.17.

공영덕 연구원
051-797-4778, ydkong6053@kmi.re.kr